

6.6

현충일

현충일에 대해 알아보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6월 6일이 현충일일까요?

예부터 6월 6일 무렵은
청명엔 사초(무덤 손질),
한식엔 성묘,
망종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 현종 5년(1014) 6월 6일엔
전사한 장병의 유해를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이처럼 망종 시기는 ‘기억과 제사의 계절’로 인식돼
현충일 날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종이 제사일로는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어요.

조선시대 무속신앙 기준에서 보면,
전사자를 포함한 무사귀신(無祀鬼神)에게는
망종이 제사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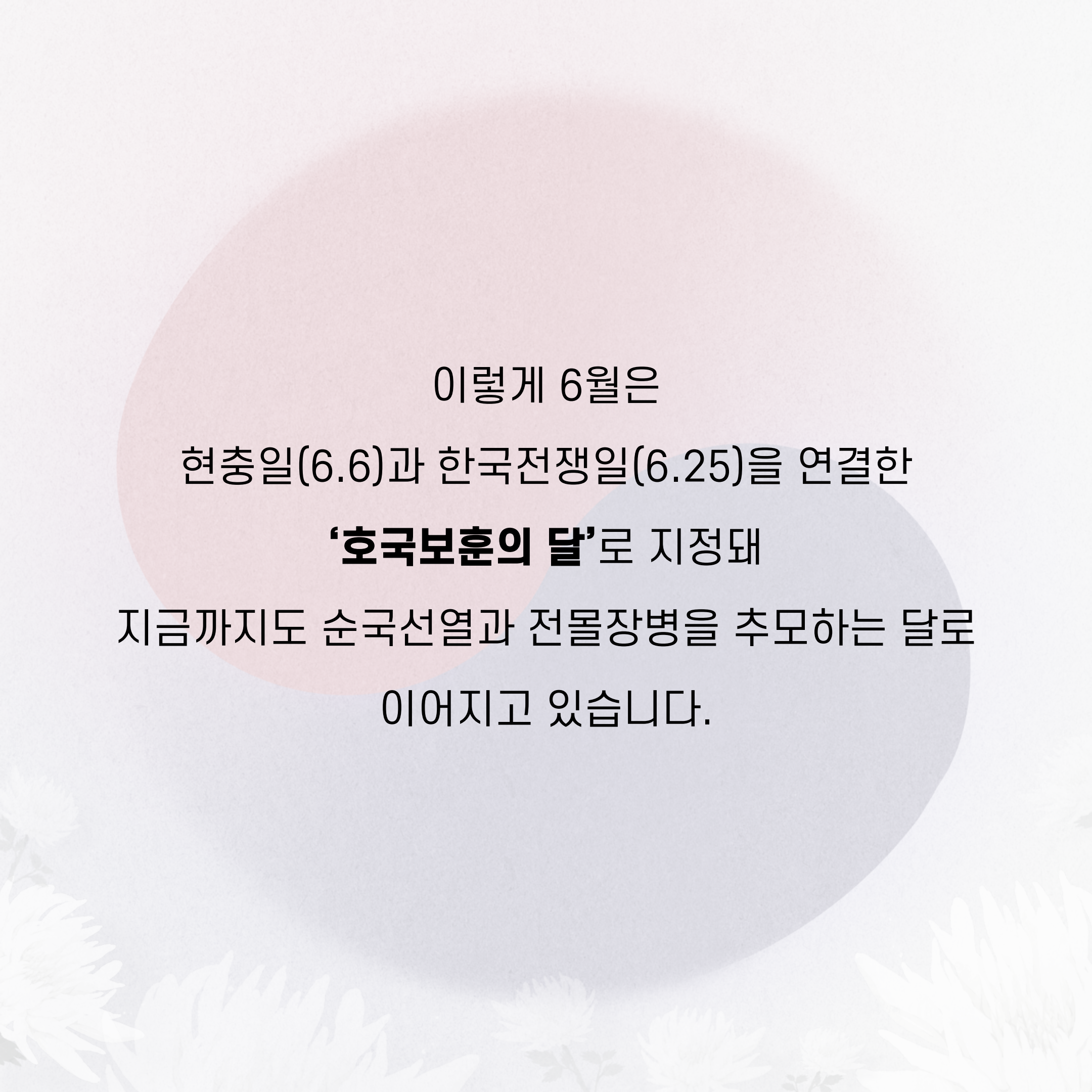
그래서 현충일의 제정 배경은
단순히 전통 풍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인 1956년,
정부는 전사자들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합니다.
(대통령령 제1145호, 1956.4.19)

지금의 ‘현충일’이 되기까지

처음엔 ‘현충기념일’로 불리며,
기념행사와 추모식이 열렸고,
1970년엔 국립묘지령을 통해
연 1회 현충추념식이 제도화됐습니다.

이후 19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현충일’로 바뀌었고,
1982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도 확정되었죠.



이렇게 6월은
현충일(6.6)과 한국전쟁일(6.25)을 연결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돼
지금까지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기울이는 날,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의 헌신 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얼굴은 알 수 없어도
그 이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현충일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5259>

